

英語의 母音 變異(The Great Vowel Shift)

—ME /i/, /ū/를 中心으로—

金 寅 淑

1. 序 論

1.1. 本稿에서는 영어의 母音變異¹ (以下 GVS로 표기하겠음)중에서 가장 중요한 爭點이 되어온 中世英語 高母音의變異에 관한 종래의 이론들을 개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을 재검토하며 그 증거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있는 이론이 어느것인가를 평가하려고 한다.

1.2. 영어학에 관한 개론서들 중에서 우선 손에 잡히는 대로 골라 보아도 GVS의 중요쟁점이 무엇인가는 곧 알 수 있다. Pyles (1964)와 Potter (1950)가 각각 다루고있는 GVS의 대목을 비교해보면 ME /i/, /ū/가 이중모음이 되고 나머지 장모음(long, tense vowels)은 모두 調音 위치가 한 단계씩 上昇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ME /i/, /ū/가 각각 /ay/, /aw/로 변한 中間 경로(intermediate stages)가 다른것이 곧 눈에 띈다. 비교의 편의상 Pyles의 장모음의 추이를 나타내는 table을 Potter 식으로 고쳐쓰면 다음과 같다(p. 188).

LME	EModE	LModE	SPELLING
i:(>ii)	əi	ai	ride
e:	i:		feet
ɛ:	e:	(ei)	great
a:	æi>e:	ei	name

1) 최근 數世紀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겪은 영어의 모음체계에 대하여 'the Great Vowel Shift'라고 命名한 학자는 Jespersen이다.

ɔ:	o:	(ou)	boat
o:	u:		boot
u: (>uú)	əu	au	house

이것을 Potter(p.66)와 비교해 보면 /i/와 /ū/의 추이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곧 알게 된다.

XIV	XVI	XVII	XVIII	SPELLING
i:(>iy)	eɪ	əɪ	aɪ	life
e:	i:			deed
e:	e:	i:		deal
a:	e:	e:	eɪ	name
ɔ:	o:		ou	home
o:	u:			moon
u:(>uw)	ou	eú	au	hous:

1.3. 음운변화 일반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론이 제기되고 또한 형식화될 수 있다. 여기서는 GVS에 관하여 흔히 시도되어온 접근법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 보고 본 연구의 위치를 재확인하겠다.²

첫째는 GVS에서처럼 음운변화가 음성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일종의 연쇄작용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어느것(what/which)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는가를 규명해보려는 시도이다. 즉 음운변화가 전면적으로 일어나도록 충동한 initiator가 어느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Luick (1914~1940)는 ME 中母音(front/back mid vowels)이 제1차적 충동('primary impulse')을 이끈 장본인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바가 있다.

둘째는 어떤 특정음의 변화가 언제(when) 일어났는가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GVS의 chronology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Zachrisson (1913~1927)과 Wyld(1927~1936)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그 증거를 흔히 occasional spelling이나 rhyme에서 찾아왔다.³

셋째는 이 변화가 어느지역(where) 또는 어떤 방언에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넷째는 음변화의 추이가 어떻게(how) 진행되었을가에 대한 의문이다

2) Cf. Wolfe (1972 : 3-6).

3) Occasional spelling이나 rhyme이 증거로는 매우 빈약한데도 Zachrisson이나 Wyld는 이것들을 지나치게 盲信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는 Dobson(1969 : 431-435)이다

예를들면 ME /i/ → ModE /ay/의 중간경로(intermediate stages)를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이 연구는 Ellis (1867~1889)에서 비롯된다. 그후 이 방면의 업적은 Zachrisson(1913), Dobson(1957), Wyld(1923:1927:1936) 등으로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Stookwell(1970), Wolfe(1972)에 이른다.

다섯째는 이같은 음운변화는 왜(why) 일어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 의문은 이 변화를 始動시킨 initiator가 무엇인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Ellis, Luick, Martinet(1955) 등으로 이어진 이 방면의 연구는 최근에 와서는 Weinreich(1968), Labov(1965), Herzog(1964)에 의해 더 박차를 가하여 Linguistic change의 근본문제는 바로 이 원인(cause/initiator)을 규명하는 것이며 이것 없이는 음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고까지 力說하고 있다.

여섯째는 음변화에 어떤 제약(costraints)은 없을까? 만약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문제이다. 이 방면의 연구로는 Stockwell(1952)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접근범위는 위의 네번째 문제로 한정될 것이며, 기타 문제들은 필요한 한도에서 언급하는 것에 그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ME /i/, /ū/에서 ModE /ay/, /aw/에 이르는 중간경로에 대한 이론들을 재검토하고 어느 이론이 보다 많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2. 몇가지 견해들

2.1. Potter에 의하면 ME /i/, /ū/는 각각 i>iy>ey>ay>ay, ū>uw>ow>aw의 경로를 밟고있다. 즉 ME /i/, /ū/는 먼저 二重母音化되고 이중모음의 제1요소(first element/ vowel nucleus)가 먼저 下降化(lowering)를 일으키고, 다음에 그것이 中舌音化(centralized)되고, 다시 下降化현상이 일어났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通稱「傳統的見解('traditional view)』라고 한다. 이 전통적 견해를 대표하는 이로 Luick, Jespersen 등을 들 수 있다.

Jespersen에 따르면 ME의 /i/, /ū/를 제외한 모든 장모음은 調音 위치가 한단계씩 上昇했으며, /i/, /ū/만은 더이상 上昇하면 자음의 성질

을 띄게됨으로 /ey/, /ow/로 二重母音化되고 그후 훨씬뒤에 /ay/, /aw/로 변한 것을 말한다(1961: 231):

The great vowel-shift consists in a general raising of all long vowels with the exception of the two high vowels /i:/ and /u:/, which could not be raised further without becoming consonants and which were diphthongized into /ei, ou/, later [ai, au]. In most cases the spelling had become fixed before the shift, which accordingly is one of the chief reasons of the divergence between spelling and sound in English: while the value of the short vowels... remained on the whole intact, the value of the long vowels... was changed.

또한 Luick는 ME /ī/, /ū/가 각각 iy>ey>æy>ay, uw>ow>æw>aw의 단계를 거쳤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의 시초를 14세기와 15세기의 사이로 잡고 있으며, 16세기에 /ey/, /ow/의 단계에 이르렀고 16세기 말에서 17세기초에 걸쳐서 /æy/, /æw/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고있다. 그리고 /ay/, /aw/에 도달한 것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경으로 보고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562):

In der Gemeinsprache können wir den Verlauf der Entwicklung an der Hand der Zeugnisse genauer verfolgen. Sie ging über die Stufen *ii, ei, æi, ai* und *uu, ou, æu, au*, und aus verschiedenen Äusserungen ist zu erkennen, dass bis ins 18. Jahrhundert, zum Teil ins 19., die erste Komponente kürzer war als die zweite. Die Anfänge der Bewegung setzen um die Scheide des 14. und 15. Jahrhunderts ein... Im 16. Jahrhundert standen die Laute, wie die meisten Zeugnisse erkennen lassen, auf der Stufe [ei, ou]. Gelegentliche Hinweise auf [i] und [ū] sind auf noch bestehendes [ii] und [uu] zu deuten. Zu Ende des 16. und in der ersten Hälfte des 17. Jahrhunderts wurde die Stufe [æi, æu] erricht. In der zweiten Hälfte des 18. Jahrhunderts und zu Anfang des 19. scheinen die meisten Zeugnisse namentlich bei [au] auf [a] als erste Komponente zu weisen, aber tatsächlich reicht [ə]—mindestens neben [a]—bis in die Gegenwart.

Luick에 의하면 음운조직 내부에서의 GVS의 initiator는 ME /ē/, /ō/이며 이것들이 각각 /i/, /ū/로 上昇하면서 본래의 /ī/, /ū/를 밀어내어⁴ 二重母音化를 강요하였다고 한다. 이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는 이러한 二重母音化가 발생한 지역은 ME /ē/, /ō/가 上昇한 지역과 일치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Luick에 의하면 /ō/가 움직이지 아

4) 'push chains and drag chains'란 이름은 Martinet (1955: 59)에서 비롯되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것은 King(1969)의 "Push Chains and Drag Chains," *Glossa*에서이다. According to King(1969: 194-200).

니한 지역에서는 /ū/도 움직이지 아니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즉 Humber강 이북의 북부지역에서는 ME /ū/가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반하여 남부지역에서는 /ō/가 /ū/로 밀고 올라갔다. 이러한 분포지역의 일치는 이들 변화에 어떤 내면적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미루어 /ē/, /ō/로 부터의 움직임이 제1차적 충동('primäre Impuls')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pp.560-61, Anm 1):

Von diesem Übergangsbereich und vielleicht einem oder anderem Punkte abgesehen, erfolgt also die Diphthongierung des me. [ū] nur dort, wo me. \bar{u} zu [ū] vorrückte, sie unterblieb, wo me. \bar{u} schon früher zu einem ü-Laut umgebildet worden war und daher im 15. Jahrhundert nicht zu [ū] vorrücken konnte: wo es also kein \bar{u} mehr gab, wurde beim ü kein Impuls zu einer Veränderung lebendig. Daraus folgt, dass ü diphthongiert wurde, weil \bar{u} zu [ū] vorrückte und der primäre Impuls bei \bar{u} ansetzte. Danach ist nicht zu zweifeln, dass dasselbe Verhältnis auch auf der andern Seite des Vokalismus bestand und das Vorrücken von me. \bar{e} und \bar{o} zeitlich ein wenig voranging.

이와같이 Luick는 GVS의 initiator가 /ē/, /ō/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Jespersen은 /i/, /u/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232-33):

Similarly... he [Luick] thinks the transition /ē/ > /i/ the primary change which caused the diphthongization of /i/. But the nexus may be equally well established the other way: after /i/ and /u/ had been diphthongized, there was nothing to hinder /ē/ and /ō/ from moving upwards and becoming /i/ and /u/; where /u/ subsisted, /ō/ was not allowed to move upwards. And there is some, to my mind, conclusive evidence that the whole shift began at the upper end.

이 같은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두사람이 주장하는 ME /i/, /u/의 변화경로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데 주목해야한다. 다만 中舌腭化 단계에서의 제1요소의 output가 실제 어떤 中舌腭이었는데 대해서는 위 두사람뿐만 아니라 여러학자들의 견해가 다르다. Luick는 /ə/로 보고 있으나 Jespersen은 /ə/와 /ʌ/의 중간형으로 보고 있다(pp. 234-5): 'From /ei/ or /ei/ the dipohthong probably developed into some kind of /əi/ with a "mixed" first element, which W[Wallis]1653⁵

5) Wallis는 두개의 中舌音 즉 *e feminine*과 *u obscurem* 을 인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i]/[ə]이고 후자는 [ʌ]로 해석하고 있다. According to Wolfe.

identifies with F weak('feminine') *e* and C [Cooper] 1685 with the vowel in *cut*.' 여기서 'feminine' *e*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ə/ 아니면 /ʌ/인 것 같다.

2.2. Ellis(1867~89)⁶는 $i > iy > ey > ay$ 의 경로를 말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əy/가 있는 방언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中舌音化의 단계가 개재되지 않은 絶對下降化(complete lowering)의 경로와 전 통적견해에서 보는 경로를 모두 병행시키려고 했으나 주경로(main line)는 역시 絶對下降化로 보는 것 같다. 그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학자로는 Sweet(1888: 15), Wyld(1936: 225)등을 들 수 있다. 처음 Sweet가 제의했던 경로는 $i > iy > ey > ay < ay$ 였으나 그 후 몇해뒤에는 $i > iy > əy > ay$ 로 그의 견해를 수정해 놓았다(1891: 266, 275).

i was diphthongized in First MnE by lowering and retracting the tongue in the first half of the vowel till it became (əi), as in *wine*, *vice*, with a very high close (ə), which was broadened in the next two periods, till the diphthong became almost (ai), as at present.

Orton(1933)은 영국의 북부방언에서 일어난 GVS의 과정에서 中舌音化현상은 絶對下降化가 끝나기 이전에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變異形(variants)으로 [əi]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표준영어의 모방이거나 [ei], [ei]에서 비롯되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어쨌던 방금 위에서 살핀 중간경로를 Dobson(1957)은 「通常理論('the usual theory')」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2.3. Kökeritz(1953)는 ME /i/의 변천경로를 두갈래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i/가 /ii/로 二重母音化된 다음 /əy/로 下降化·中舌音化가 거의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보고, 다른 하나는 /ey/에로 下降되었다고 보고 있다(p.216, 3, 4):

The first stage was not the introduction of a slack [i] after [i:] but the introduction of a glide [i] before it, resulting in the rising diphthong [ii]: with the gradual lowering of this glide to [ə] and the change of the rising diphthong to a falling diphthong, the whole development would be approximately this: [i:] > ii > əi > əi > ʌi > əi].

6) Bibliography에 들어있지 않은 학자이름들은 Chomsky and Halle (1968) 및 Wolfe(1972)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듯이 synchronic English에는 순수한 long tense vowel은 없으며 그대신 vowel+glide의 이중모음 구조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할때, Kökeritz가 가정해놓은 on-glide+vowel에 의한 母音推移의 설명은 설득력이 빈약한것 같다. 또한 ME 이중모음 /iy/가(그는 i로 보고 있지만) 中舌音化와 下降化를 동시에 겪었다는 것도 납득이 안간다.

Dobson(1957)도 이점(/iy/>/əy/)에 있어서는 (on-glide 문제를 제외하고) Kökeritz와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며, 절대하강화 다음에 中舌音化라는 通常理論(the usual theory)를 비판하면서 ME /i/, /ū/의 반사형(reflex)인 /ēy/, /ōw/는 존재했음리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p.660):

The usual theory... is that ME *i* developed through the stages [ei],[ei], and [æi] to [ai]. This view is altogether impossible. If the development had been that suggested, ME *i* would have crossed the path of ME *ai* developing to [æi] and [ei]...; most of the orthoepists who say that ME *i* was *ei* still pronounced ME *ai* as a diphthong. Yet the two sounds are always kept distinct, as they are still. ME *i* can never have been [ei].

그는 正音學者들(orthoepists)이 ME /i/를 *ei*로 轉寫하고 외국어(Latin *ei*, Greek *ei* 등)의 음 [ei]와 동일시하고 있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어데까지나 近似音에 불과하다는 說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Welsh Hymn과 Salesbury에서 ME/i/를 Welsh *ei*의 음과 동일시하고 있는것은 [æi]의 뜻으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i*의 轉寫 및 外國音 [ei]과의 비교는 近似音에 불과하다는데서 그 실마리를 얻은 Dobson은 ME /i/는 먼저 /ii/가 되었다가 제1요소가 中舌音化 /ei/가 되었다는 가설에 도달했다. 그는 이 현상을 ME/ē/에서 비롯된 ModE [i:]의 발달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즉 이 음은 현재 남부영어에서 다소 二重母音化되어 [ii]로 되고, 二重母音化의 도를 지나쳐서 발음하면 London 영어나 호주영어에서처럼 [ei]가 아니라 [æi]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Dobson이 가정한 ME /ū/의 변화경로는 ME /i/의 것과 대칭적관계에 있지 않음이 흥미롭다. 그는 ME /ū/는 제1단계에서 /uw/와 같은 다소 긴장이 이완된 이중모음으로 변했고 다음에 제1요소가 下降·中舌화된 /aw/로 되었다가 최후의 단계에서 /aw/에 도달했다고 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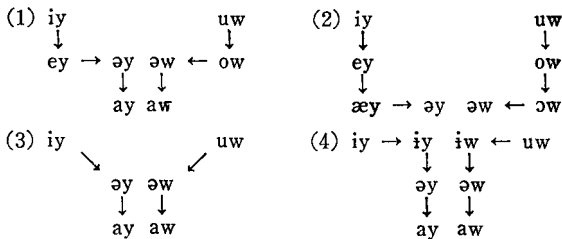
2.4. Kökeritz와 Dobson 보다 먼저 ME /i/, /ū/의 변화경로를 형식화한 사람은 Stockwell(1952; 1969)이다. 그는 下降化가 있기전에 먼저 中舌音化가 있었음을 제의하면서 中舌高母音 /i/를 설정하고 있다. 이 길만이 母音上昇化의 결과로 빚어지는 다른 음과의 交替(crossing)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1952 : 84):

[This] was necessary in the ME frame of syllabic nuclei, since it is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certain ME complex nuclei (specifically the development of /ay/ from /iy/, which must have gone through the series /iy>iy>əy>ay/, and of /aw/ from /uw/, which must have been /uw>iw>əw>aw/; any different series postulated for these sequences will introduce crossing with other shifts within the system.

위에서 언급한 여러 견해들을 분류해보면 ME /i/, /ū/→ModE/ay/, /aw/의 중간경로를 다음의 네가지 가설로 묶을 수 있다.

(1) 下降化의 첫 단계가 끝난뒤, 그리고 두번째 下降化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VS의 중간쯤에서 中舌音化가 일어났다는 견해('traditional view'), (2) 下降化과정의 完全히 끝난뒤에 中舌音化가 발생했다는 견해('usual theory') (3) 下降化 및 中舌音化가 同時에 일어나고 나서 다시 下降化 현상이 있었다는 견해(Kökeritz, Dobson), 그리고 (4) 下降化가 일어나기에 앞서 먼저 中舌音化 단계가 있었다는 견해(Stockwell) 등이다.

이것을 diagram으로 나타내면 대략 다음과 같다.



3. 생성음운론의 입장

3.1. GVS의 단계적 음운변화에 대한 가장 자세하고 광범위한 최근의 기술은 Chomsky and Halle의 *The Sound Pattern of English*(1969), Part III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變形生成音韻論(Generative Phonology)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잠시 이 이론의 윤곽을 살펴보고 이들이 형식화한 ME /i/, /ü/의 변화 경로가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그들에 의하면 文法이란 話者의 언어능력(competence)을 기술하는 것이며, 話者안에 內在하는 規則體系이다(SPE, 3):

[“grammar” is used] . . . with systematic ambiguity. On the one hand, the term refers to the explicit theory constructed by the linguist and proposed as a description of the speaker’s competence. On the other hand, we use the term to refer to this competence itself. . . The person who has acquired a knowledge of a language has internalized a system of rules that determines sound-meaning connections for indefinitely many sentences.

그렇다고 해서 話者는 늘 규칙체계를 의식하거나, 마음대로 이것들을 형식화한다는 것은 아니다. 원주민의 내재된 언어학적 지식 또는 규칙체계를 밝히는 것, 즉 문법을 기술하는 것은 바로 언어학자나 문법학자들이다.

문법을 구성하고 있는 규칙들은 話者의 發話形式을 결정지워준다. 만일 두 話者의 音聲解釋(phonetic interpretation)이 다르다면 그것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규칙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음운변화가 눈에 띄면 그 원인은 오직 문법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다. 또한 문법에 변화를 이끄는 직접적 원인은 새로운 규칙들이 가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音變化要因(특히 chronological phonology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다.(SPE, 249):

A straightforward way of effecting changes in a grammar is to add new rules. The addition of a rule to the phonological component may be regarded as the most rudimentary type of sound change. When such a change takes place, the added rule will satisfy the same formal constraints as the other rules of the the phonological component. Many sound changes known in diachronic phonology are of this type.

이같은 언어변화(linguistic change)의 개념은 「전통적 견해」에서도 엿볼 수 있으나 다만 그 차이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생성음운론적 입장에서 볼때, 언어변화의 모델의 특징으로써 어떤 시기에 발하여진 말은 그 뒤에 이어지는 시기에 발한 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따라서 달라진 것은 각기 다른 시기의 문법인 것이며, 변

화하는 것은 각 시기의 話者들의 언어능력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모델로 삼을 경우 부모의 세대에서의 修正과 자식의 세대에 있어서의 문법의 簡素化(simplification)와는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다.

둘째, 전통적인 기술방식에서는 흔히 문법, 특정음의 변화, 類推, 借用 등의 네가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생성음운론에서는 문법이라는 개념만으로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어른에 있어서의 문법의 변화는 주로 규칙의 추가(addition)에 한정되는데 어린이에 있어서는 규칙의 消失, 순서바꿈(reordering), 간소화, 재조직화(restructuring)등이 일어난다.

셋째, 전통적 견해에서는 소위 sound law에 의한 변화 전후의 특정음의 音聲表記 내지는 文字表記의 대응관계를 공식화하는데 그쳤다. 생성음운론에서는 문법에 가하여지는 규칙들은 문자표기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도 여러세대에 걸쳐 계속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변하는 것은 음 자체가 아니고 음운규칙이며 그 규칙을 받아서 변화한 언어형식은 모두 변화를 입게됨으로 결국 변화는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된다.

넷째, 생성음운론에서는 흡이란 하나의 추상화된 존재로 다루어지고 따라서 음변화란 하나의 음의 추상체가 다른 음으로 불리는 또 다른 추상체에 의해 置換되는 경우를 충분히 고려한다. 음변화가 추상음의 置換現象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음변화는 漸進的(gradual)인 것이 아니며 突發的(discrete)인 현상임을 의미한다 하겠다.⁷

음운부문에서의 input가 되는 lexical items는 아직 실제적 발화형태와는 거리가 먼 추상적인 것에 머문다. 바꾸어 말하면 話者의 어휘는 추상적인 基底形式(underlying forms)들이며, 이것들이 일련의 순서매겨진 규칙들(ordered rules)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發話로 나타난다.

두개의 lexical item인 *divine/divinity*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면 생성음운론에서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두개의 낱말들은 음성적으로 다르지만 추상적 기저형은 동일하다. 이들의 기초형은 *divin*이라고 할 수 있다. 일련의 순서매겨진 규칙들이 이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표면구조에 작용한다. 즉 *divinity*에 있어서는 제2음

7) Cf. Wolfe (pp. 21~27).

질의 모음이 短音化규칙(Laxing rule)의 적용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개의 음절로 된 어미앞에 놓이므로서 Trisyllabic Shortening Rule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divine*에서는 제2음절이 그대로 長音으로 남게되며 이것이 二重母音化와 母音變異(Vowel Shift) 규칙의 적용을 받아 /i/ > /iy/ > /ey/ > ……로 바뀐다. 다시말해서 어휘의 추상적 기저음을 설정하고 여기에 일련의 규칙들을 가함으로써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음성으로 나타내 보이려는 것이 생성음운론의 목표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GVS에 대한 광범위한 생성음운론적 해석은 SPE에서 비롯된다. Chomsky and Halle는 16세기 正音學者 John Hart⁸⁾의 기록을 해석하면서 15세기 이후 시작된 GVS의 글자는 ME /i/, /ū/, /ē/, /ō/이며 제1차 변화는 다음과 같다고 했다.

ME	ī	ū	ē	ō
	↓	↓	↓	↓
	ēy	ōw	ī	ū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매겨진 규칙들이 15세기 영문법에 가하여 졌다고 보고 있다.

Diphthongization

$$\phi \rightarrow \left[\begin{array}{l} - \text{voc} \\ - \text{cons} \\ \alpha \text{ back}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 \text{voc} \\ - \text{cons} \\ + \text{tense} \\ + \text{high} \\ \alpha \text{ abck} \end{array} \right) \text{---}$$

Vowel Shift

$$\left[\begin{array}{l} \alpha \text{ high} \\ - \text{low} \end{array} \right] \rightarrow [-\alpha \text{ high}] / \left[\begin{array}{l} \text{---} \\ + \text{tense} \\ + \text{stress} \end{array} \right]$$

GVS의 제2단계에 대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ē	ō
↓	↓
ə/ʌ	ə/ʌ
↓	↓
a	a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매겨진 규칙들을 첨가하고 있다.

8) Hart를 경시한 사람으로는 Zachrisson, Wyld, Kökeritz이며, 중시한 사람으로 Dobson, Jespersen, Chomsky and Halle 등이다.

$$(11) (a) \begin{bmatrix} -\text{high} \\ -\text{low}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round} \\ +\text{back} \end{bmatrix}$$

$$(b) \begin{bmatrix} \alpha \text{ back} \\ \alpha \text{ round} \end{bmatrix} \rightarrow [-\text{low}]$$

$$(12) \begin{bmatrix} -\text{round} \\ +\text{back} \end{bmatrix} \rightarrow [+low]$$

설명을 부연하면 (11)a에서 中舌音化규칙을 가하고 동시에 上昇化규칙 b를 첨가하는데 a, b의 순서가 매겨지는 것은 먼저 적용된 규칙 a로 인한 癒合(merger) 현상과 $\bar{e} > a$, $\bar{o} > a$ 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규칙 (12)를 가하므로써 中舌音 \bar{e}/\bar{o} 가 a로 下降化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것으로 볼때 Hart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비록 언어기술의 framework는 새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역시 「전통적전해」 즉 (1)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그러나 그들은 GVS의 제2단계에서 「통상이론」 즉 (2)의 가능성이 표준영어⁹ 아닌 다른 방언들에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형식화하고 있다.

$$(13) [\beta \text{ low}] \rightarrow [\beta -\text{low}] / \begin{bmatrix} \alpha \text{ back} \\ \alpha \text{ round} \\ -\text{high} \end{bmatrix}$$

$$(14) [+low] \rightarrow \begin{bmatrix} -\text{round} \\ +\text{back} \end{bmatrix}$$

4. 證據(evidence)

4.1. 음변화에 대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證據源이 되어온 것으로는 詩韻(rhymes), 철자(spellings), 속기법(shorthand systems), 동족어(cognate words), 정음학자들의 기록(orthoepistical statements)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많이 이용해온 증거원으로는 특히 詩韻, 철자, 속기법에 의한 기록등을 들 수 있는데 그 나름대로 限界나 결함을 지니고 있다. 음변화의 증거로서 詩韻이나 철자나 방언들을 지나치게 중시했던 과거의 경향은 오히려 동시대의 정음학들의 기록을 멀리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Wolfe도 지적하고 있다(p.32):

9) 초기 현대영어에 있어서의 표준어와 방언의 성격 및 관계에 대해서는 Dobson (1969 : 419-439) 참조.

The value of the orthoepistical evidence has been disparaged in favor of that provided by orthography, rhymes, and contemporary dialects by scholars from Weymouth to Stockwell.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이들 정음학자들이 기술하는데 사용한 기호가 제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멋대로 만들어낸 人爲的인 記號가 解讀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데 있었다 하겠다. 이들에 대한 해석만 올바르고 그 해석이 正當化되는 한, 증거로서의 값어치는 가장 높다 하겠다. 이들에 대한 해석은 SPE에서 비교적 충실하고 정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본다. Hart를 비롯한 여러 정음학자들의 기록은 위에서 언급된 다른 증거원들에 비해서 ME /i/, /ū/의 반사형은 물론 中舌音化규칙과 下降化규칙의 상대적 순서를 훨씬 더 잘 明示하고 있다. 方言과 同族語를 증거로 잘 驅使한 학자는 Luick이다. 그의 증거는 주로 diachronic한 것에 머물렀지만 설득력이 있다. 여기에다 synchronic evidence를 보완하면 매우 좋은 입증자료가 될 것이다.

4.2. Chomsky and Halle, Jespersen, Wolfe등은 모두 Hart의 dialect에서 ME /i/, /ū/의 반사형이 /ey/, /ow/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Dobson의 해석에 의하면 ME /i/, /ū/에서 결과된 이중모음의 제1요소는 증설모음 [ə]임에 틀림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같은 해석은 그의 음변화의 「점진성」에 입각한 것이며 이는 Hart의 증거에 대한 표면적인 해석일 뿐 내면적으로는 상치되는 점이 많다. Dobson의 생각에 의하면 만일 ME /i/가 제1요소의 中舌音化없이 下降化만으로 二重母音化했고 그 결과 어떤 부위에서 이 이중모음이 ME /ay/ > /æy/ > /ey/의 경로와 交替(cross) 했다면 이上昇하는 이중모음과 下降하는 이중모음은 어쩔 수 없이 癒合(merge)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유합은 음변화를 점진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exchange rule을 불허하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Dobson을 포함해서 몇몇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Hart는 후설모음과 전설모음을 분명히 구별짓고 있으며 후설모음을 구별짓는 방법으로 roundness를 강조하고 있는 그로써 만약 ME /ū/의 반사형이 /əw/라면 /ow/를 거론하는데 있어서 제1요소 /o/는 [-round]라고 언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것은 /ə/라기 보다는 /o/[+round]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Hart의 ME /i/, /ū/ > /ey/, /ow/는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가해짐으로서 일어난 변화이다. 즉 먼저 二重母音化규칙의 적

음을 받아 /īy/, /ūw/가 되고, 다음에 母音變異규칙이 가해져서 /ēy/, /ōw/로 변하고, 다시 단모음화규칙(Diphthong Laxing)이 적용되어 /ey/, /ow/로 변화되었다.

Bellot(1580)는 두개의 二重母音(iy; ui/uy)을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사람이 'Ey'소리를 내는 것 처럼 발음된다고 했다. 이를테면 Christ, 를 읽을때는 마치 'Chreist'란 철자를 읽는것 처럼 소리내면 된다고 했다. ME /ū/에 있어서는 철자 *au*가 프랑스어의 *ou*를 방불케 하는 음을 낸다고 했는데, 이는 /ow/에 가까운 음이며 /aw/ 이기에는 변화가 너무 이르다고 했다. ME /ī/, /ū/를 각각 /ey/, /ow/로 본것으로는 Hart와 일치하지만 한가지 특이한 것은 Bellot는 중설모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 중설모음은 /ə/는 아닌것 같으며 두 이중모음(/ey/, /ow/)의 제1요소들에 공통된 것으로도 보지 않고 있다. 그것은 그가 중설모음은 *e feminine*으로 보지 않고 *e masculine*으로 본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그것은 /ey/가 /oy/로 된 경우(*moi*)도 있고해서 /o/에 가까운 中舌母音으로 본것에 기인하는듯 싶으나 확실한 증거는 없다.

Gil(1619)은 모음의 음가표기를 위한 phonetic transcript를 따로 만들지 않고 철자자체에서 구별을 짓는 방안(예를들면, *â, ä, a* 등)을 강구했기때문에 우리는 같은 symbol로 쓰인 단어들에서 공통점을 찾아 그 음가를 推定하는 길 밖에 없다. 그는 ME /ū/의 반사형 /ow/를 *ou*로 표기했고 ME /öu/의 반사형 /ōw/는 *öu*로 표기했다. *o*와 *ö*는 홑의 長短의 차이라는 그의 말이고보면 위의 二重母音의 제1요소들은 완전히 구별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ū/ > /ōw/가 아닌 /ū/ > /ow/ 임이 확실하다. ME /ī/ > /ey/에 대해서는 두가지 해석이 있다. 이를 표기하는 철자는 *j*인데 그 음가는 이중모음 [ei]에 가깝지만 *e*를 눌러서 내는 소리보다는 더 얇다(...The diphthong *ei*, but... a little *thinner* than if we were to spread it out into *e*...)고 말한데서 두가지의 해석이 연유하는 것 같다. Dobson (1957, p.150)은 그것을 /ay/로 보고 있으나 Wolfe (p.53)는 'thinner'란 말이 中舌母音化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못박고 있다. 영어에서는 흔히 약음절의 /ə/가 *e*로 표기되어오고 있으나, Gil의 *j*는 非強勢음절에 쓰이지 않으며 또는 다른 환경에서 /e/로 철자 *e*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Gil이 *ei*와 *j*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내려고한 二重母音의 제1요소의 음가는 /e/였다고 가정할 수 밖

에 없다.

Daines(1633)는 ME \bar{e} , \bar{e} , i (/ē/, /æ/, /i/)는 각각 Latin의 *I*, *E*, *Ei* (diphthong)로 소리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Latin *ei*와 ME \bar{i} 의 소리를 동일시한 것은 알겠으나 실제의 음가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길이 없다. 다만 그에 의하면 영국의 북부지방에서는 *i*를 너무 폭넓게 사용하므로써 실제 *fire*와 *faire*의 구별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그곳 방언에서의 ME /i/ 반사형은 /ey/가 아니었나 추측된다.

또한 *blood*, *stood*, *wool*에서 처럼 ME /ū/가 /u/로 발음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아직 /ə/음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u*가 *rr* 앞에서 'flat or dull sound and short' 현상을 이끈다고한 것은 *rr*앞에서 /ə/음이 발음되었음을 시사하였으며 이는 /u/가 /ə/로 下降과 동시에 中舌音化되었다는 것을 최초로 시사한것이 된다.

Hodges(1653)는 /u/를 /ə/로 下降과 동시에 中舌音化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ME /ū/는 /ow/이지 /əw/는 아니다. 왜냐하면 ME /ū/가 /ow/를 거쳐 /əw/로 변환것은 /ū/ > /ə/가 일어난 뒤의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변화의 chronological order는 /ū/ > ow > əw/이지 /ū/ > əw/는 아니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그에게서는 ME /i/가 /ey/로 되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ME /i/, /ū/가 /ey/, /ow/로 머물다가 /əy/, /əw, Δw/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Hodges 이후가 되는것 같다. 다시말해서 Wallis(1653~1697)에서부터 분명히 ME /i/, /ū/는 /əy/, /əw, Δw/로 認知되기 시작하였다.

Wallis는 영어의 모음을 9개로 보고 이것을 세 Class (Gutturals, Palatines, Labials)로 나누고 있는데, 현대 영어와 대응시켜보면 Gutturals는 central vowels, Palatines는 front vowels, Labials는 back vowels에 해당된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것은 우선 中舌母音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만 좀더 살펴보면 그의 Guttural vowels는 다시 *o/a* apertum, French *e* feminine, 그리고 *o/u* obscurum으로 나뉜다. 첫번째것은 /ɔ/, /ɔ/로, 두번째것은 /ə/, /ə/로, 그리고 세번째것은 흔히 /Δ/로 해석되고 있다. ME /i/는 *e* femine+y로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ey/임이 틀림 없는것 같으나 Stockwell(1969)은 *e* feminine을 /i/로 지정하므로써 이를 토대로 中舌音化가 下降化보다 선행한다는 그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Wallis에 의하면 *e* feminine은 ME \bar{i} , *oi/ui*를 제외

하고는 *r* 앞에서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i/는 아닌 것 같고 /ə/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Wallis는 그것을 /ʌ/와 /ɔ/의 중간음 /ɜ/로 지정하고 있으나 Wolfe (p.70)에 의하면 /ɜ/를 phonetic fact로 받아드리기가 어렵고 차라리 /ə/나 /ʌ/보다 좀더 내려온 음 즉 /a/에 가까워진 음으로 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그것은 Wallis가 예로든 ME *virtue, servant*의 단어들에서나 *sterre* > *star*나 *parson/person*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첫음절의 모음은 다소 下降되어 ME /a/와 癒合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Wallis와 같은 시대의 정음학자로 그의 영향을 받았을 Wilkins(1668)는 ME /i/, /ū/ reflex의 제1요소를 Wallis와는 달리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목할만 하다. 그는 7개의 모음과 3개의 glide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중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3개의 glide *v, i, y*가 모두 모음으로도 쓰인다는 점이며, *v*는 모음으로 쓰일때는 /u/, /ū/, glide로 쓰일때는 /w/에 해당하고 *i*는 모음으로 쓰일때는 /i/, /ī/ glide로 쓰일때는 /y/에 해당되고, *y*는 모음과 glide에서 모두 /ə/에 해당된다. 그는 이 같은 식으로 이중모음을 다음의 여섯가지로 기록하고 있다. *ai* (boy) [=ɔy], *ai* (aye) [=æy], *yi* (bite) [=əy], *av* (awe) [=ɔw], *ev* (ewe) [=ew], *yr* (owl) [=əw]. 그가 ME /i/, /ū/의 reflex를 /əw/, /əw/로 지각하였다는 것을 위의 예에서도 명백해진다.

Coles(1674)는 오직 하나의 중설모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중모음은 세가지만 인정하고 있는데, 첫째, ME /i/의 반사형의 제1요소를 'gluttural'이라고 말하므로써 /əy/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둘째, ME *oi, ui*를 나타내는 것으로 /ɔy/가 아니고 /ʌy/에 해당하는 이중모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셋째, ME /ū/의 반사형으로 /əw/를 *plough* 같은 단어를 예로 언급하고 있다.

Cooper(1687)는 이중모음의 제2요소를 구성하는 off-glide *ee*와 *oo*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p.14): The sounds *ee* and *oo*, which are the closest of all Vowels, and come nearest to the nature of Consonants, can only be set after other Vowels.

그는 또한 이중모음의 제2요소로써 *i*와 *u*를 사용할때는 그것들이 각각 *ee*와 *oo*의 음가를 지닌다고 뜻을 박고 있다. 그는 또 /iy/, /uw/와 같은 이중모음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이 음들이 실제로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Cooper는 *boy*의 예에서 front glide *y*는

ui(=əy)라고 했으며, 이때 *u*는 *nut*, *up*의 모음들의 음가이고 *i*는 'i long' 즉 *ee* 음가라고 했다. 이중모음 *ui*의 예로 그는 *blind*, *wind*, *pined*, *beguile*, *guide*, *njoin*, *joint-ure*, *ointment*, *broil* 등을 들고 있다.

ME /ū/의 reflex로는 *u guttural*+*u*(=əw)라고 했으며 예로 *out*, *abouti*, *crown*, *loud*, *tower* 등을 들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정음학자들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chart로 요약할 수 있다.

	ME/i/→	ME /ū/→
1. Hart (1551—1579)	/ey/	/ow/
2. Bellot (1580)	/ey/	/ow/
3. Gil (1619)	/ey/	/ow/
4. Daines ()	/ey/	/ow/?
5. Hodges (1643)	?	/ow/
6. Wallis (1653—1699)	/əy/?	/ʌw/
7. Wilkins (1668)	/əy/	/əw/
8. Coles (1674)	/əy/	/əw/
9. Cooper (1687)	/əy/	/əw/*

* /əw/는 wolfe의 해석이며 C/H에 의하면 /ʌw/이다.

이 chart에서 명백해 졌듯이 이중모음 /uw/의 제1요소 /u/가 /ə/로 下降과 동시에 中舌音化(unrounding)가 된것을 맨 처음으로 시사한 사람은 Daines이며, /u/, /ə/를 명백히 구별짓기 시작한 것은 Hodges 이후였다. 그는 ME /i/의 음가는 명백히 하고 있지 않으나 ME /ū/는 /ow/로 제1요소가 下降된것으로 보고 있다. ME/i/, /ū/의 첫단계에서 下降化보다 中舌音化가 앞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이는 Dobson과 Kökorits 뿐이다.¹⁰

그러한데 위에 든 16, 7세기의 정음학자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Hodges 이전의 모든 정음학자들은 /ey/, /ow/를 내세우고 있는데 반해 그 이후의 학자들은 /əy/, /əw, ʌw/로

10) 中舌音化가 下降化를 선행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이들에게 Stockwell을 들 수 있는데 그가 내세우고 있는 음은 mid central vowel이 아니고 high central vowel [i] 이다.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초기 정음학자들이 실제로 /əy/, /əw/를 지각하였을 거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1) 왜 Hodges 이전의 학자들은 /ə/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그 이후의 학자들은 하나같이 /ə/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는 후자에 와서 음성에 대한 지각이 더 예민해졌다는 뜻인가? (2) Hodges 이전의 학자들은 phonetic alphabet에 handicap을 가졌는데 반해서 그 이후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인가? 갑작스럽게 그 이후의 학자들의 創意性이 향상되었다는 말인가? (3)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충분히 구별했던 몇몇 Hodges 이전의 정음학자들이 /i/, /ū/ 반사형의 제1요소를 /e/, /o/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해서 왜 Hodges 이후의 학자들은 하나같이 중설모음 /ə/나 /ʌ/로 생각하였는가? 그렇다면 전자가 실재하지도 않은 음의 차이까지 들을 수 있었거나 같은 음가를 틀리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가졌다가 그 경향이 Hodges에 와서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말인가?

Wolfe는 이에 관해서 말하기를 이는 Hodge를 전후해서 실제로 큰 음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p.108):

These considerations seem to me to make very improbable the assumption that *me* *i*, *ū*, are always to be interpreted as being /əy/, /əw/. A much simpler and more straightforward interpretation is that there was an actual sound change, and that Hodges (or possibly Daines) is the first to show any trace of this.

또 설사 Hart Bellot, Gil 등이 사실상 /əy/나 /əw/를 지각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中舌腭化과정의 下降化 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증거는 되지 못할 것이다. 처음 기록된 이중모음이 이중모음화와 下降化를 둘 다 동시에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겠지만 역시 下降化규칙이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 /əy/, /əw/를 가진 방언보다 /ey/, /ow/를 가진 방언이 먼저 존재했다면, 역시 그것은 중설음화 보다는 下降化가 먼저 존재했다는 증거가 될 뿐이다.

4.3. Stockwell에 의하면 영어의 모음변이는 高母腭 /i/, /ū/의 이중모음화를 전제로 하며 이중모음화 뒤에는 반드시 중설모음화가 뒤따른다고 했다. 그러나 이 중 설음화가 이중모음화의 결과로서나 혹은 모음변이의 필수요건으로써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를 다른 언어들에서 볼 수 있다.

첫째, Kucéra(1958, 1961)는 Czech어에서 예를 들면서 책코인들은 이른바 literary language(LL)와 common language(CC)와 local dialect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그들의 언어생활은 trilingual이라고 할 수 있다. LL은 학교, 교회, 문학등에서 사용되는 19세기 이후에 확립된 책코민족주의 부흥운동의 결과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떤면에서 archaic language이며, CC는 Bohemia 방언들에 기원을 둔 일종의 interdialect로써 많은 이들이 그들의 지방방언대신 공용어로 쓰고 있다고 한다.

LL과 CC의 變異形들을 /i/, /ū/에 관련된 것만 인용하여 보면(Kučera, p.88):

LL	ex.	CC	ex.
/i/	/tīden/ ('week')~ /krutī/ ('cruel')~	/ey/	/teyden/ /krutey/
/ū/	/ūrat/ ('office')~ /ūdolī/ ('valley')~	/ow/	/ourat/ /oudolī/

이들 변이형들은 18세기 중부 Bohemian 방언에서 일어난 diachronic 한 음운변화에 대한 synchronic reflex라고 할 수 있다.

이때 LL은 그 보다 더 오랜 모음변이 이전의 방언(pre-vowel shift dialect)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보고 알수 있듯이 diachronic sound change는 synchronic alternation과 일치한다. 즉 이들은 語頭에서 각각 /ī/ > /ey/, /ū/ > /ow/로 변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이같은 음변화가 반영된 이 시대의 모든 문서는 표준정음자(a, e, i, o, u, y)로만 표기된듯하고 정음학자들이 phonetic alphabet에 관심을 가진 흔적이 없다고 하겠으나 그렇다면 다른 음(예를 들면 [ə]가 있었다면)을 나타내는 어떤 흔적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며, 또 현대 Czech어에는 중설음화현상을 볼 수 없으므로 LL의 CC 변이형들은 Hart, Bellot, Gil 등에서도 보여진바 있다.

둘째, Schmalstieg(1964)는 위와 비슷한 현상을 Old Prussian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 언어의 Conservative System(CS)과 Innovating System(IS)의 변이형들을 비교하고 있다.

CS	IS
giwan ('lif'e') ~	geiwan
hūton ('to be') ~	bouton
nūmas ('us') ~	noumas

Czech어에서는 어두에서만 /ū/가 /ow/로 변환것에 반해서 Old Prussian에서는 제한없이 어떤 위치에서나 보편적으로 /ī/ > /ey/, /ū/ > /ow/가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아도 이 현상은 명백해진다. 이 예는 Old Prussian Catechism의 세가지 version에서 골라낸 것이다.

nusen rickis (1545)	} <i>Our Lord</i>
nouson reykeis(1561)	
nouson Rikijs (latest)	

여기서 추론의 근거가 되는 것은 다만 철자의 변화뿐이므로 이들 변이형들의 실제 음가에 대해서 정확한 claim을 제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Old Prussian은 dead language이므로 중설음화의 단계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없다. 다만 확실한것은 이중모음화 되었을때의 제 1요소가 /i/ > /e/로 확연히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위의 예들이 제시하는 증거는 /ī/ > /ey/, /ū/ > /ow/와 같은 변화가 전혀 중설음화의 개입없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Stockwell은 현대영어의 방언에 나타나지 않은 /ey/, /ow/와 같은 형태를 가정하고 있는 Chomsky and Halle의 모음변이 공식은 역사적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McCawley도 만일 ME /ī/의 반사형이 /ey/이며 변이형으로는 /i/를 가진(예, *divine/divinity*) dialect가 발견된다면 高母音과 中母音(mid-vowel)을 서로 바꾸는 exchange rule이 문법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같은 방언이 있음을 몇몇 학자들은 증명하고 있다. 이를테면 Kökeritz는 현재 Staffordshire 방언에서는 ME /ī/ > [ei]의 현상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1953, p.216, n.4), Wright (1928)는 Northern Scotland, Northern Ireland, Yorkshire, Northumberland 일부지역에 me/ī/ > [ei]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ME/ū/ > /ow/를 지닌 방언에 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고 Kökeritz만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결코 下降化를 거치지 않고 바로 /əw/의 단계를 통과하

지는 않았을 거라는 /i/와의 대칭적인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Luick(p.95)도 독일어의 Swabian 방언을 포함해서 ME /i/, /ū/의 첫 단계로 /ey/, /ow/를 나타낸 여러 방언들의 예를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이것들은 Stockwell의 上記 反論의 근거가 빈약함을 보여주며, McCawley가 시사한 확증의 불가능성을 反證해주는 것이 된다.

넷째, Labov는 그의 최근의 연구에서 下降化보다는 中舌腭化가 앞선다는 그의 종전의 견해를 일부 수정하면서 ME 長母音의 上昇은 非中舌腭(peripheral/non-central)의 外圍徑路를 따라서 일어나는데 반해서 短母音이나 이중 모음의 제1요소의 변화는 raising track하고는 충분히 간격을 둔, 그러면서도 중설음과는 거리가 먼, 경로를 따라서 진행된다고 했다. 바꿔말하면 이는 어데까지나 전설/후설의 경로이지 중설의 경로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The more precise view of phonological space which we obtain with spectrographic studies shows us that the raising of tense vowels, in front and in back, takes place along a peripheral route, with relatively extreme second formant positions. The falling of the short vowels and diphthongal nuclei takes place along a less peripheral path, well separated from the raising track, but still distinctly front and back rather than central.... Thus we see diphthongs or short vowels passing downward on close proximity to the long or tense vowels, but preserving a distinct separation. (n.d. pp. 9-10 q. Wolfe.)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이중모음의 제1요소나 단모음은 장모음의 상승경로에 거의 인접한 길을 따라 하강하지만 간격은 완전히 유지되고 동시에 음도 구별(distinct)되고 있다. 이와같이 Labov가 인용한 Specktrograph 연구의 결과도 모음변이의 전통적인 견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4.4. 영어의 모음변이를 설명하는 Chomsky and Halle의 exchange (또는 α switching) rule에 대해서는 몇몇 반대하는 논의가 있어왔다.¹¹ SPE에서 그들이 이 규칙을 원용하는 단적인 이유는 Hart의 문법을 synchronic grammar에서 기술하려면 이 규칙이 훨씬 간편하기 때문이다. 그들에 의하면 Hart의 규칙은 재조직화(restructuring)의 결과일 것이며 그의 dialect는 SPE의 규칙(15)가 가하여짐으로서 얻어진 결과라는 것

11) Cf. Carter, R. (1967).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Great Vowel Shift." Unpublished paper read to the New York Linguistic Circle, March 1967; Langacker (1969). "Mirror Image Rules I: Syntax," *Language* 45 : 575-598.

이다. 영어의 모음변이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上昇(/ē/>/i/, /ō/>/ū/)과 下降(/ī/>/ē/, /ū/>/ō/)의 환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영어의 어떤 방언들중에는 switch에 의해서 가장 잘 기술내지는 설명될 수 있는 모음변이현상이 있다.¹²

Luick는 어떤 방언의 변이형들에는 ME/i/, /ū/ 반사형의 대칭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oy/, /ew/의 경우 /oy/가 나타나면 반드시 /ew/ 현상이 대칭적으로 동반한다고 했다.

Tiffin(1751)도 ME /i/, /ū/의 방언 변이형에서 /oy/, /ew/를 기록하고 있다.

Matthews(1936)도 /oy/, /ew/의 공존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변이형 /oy/, /ew/가 공존했다는 확신은 더욱 굳어진다. 이들 변이형의 변화 경로에 대해서는 異論이 생긴다. Luick는 /i/>/ey/>/əy/>/ay/>/oy/; /ū/>/ow/>/əw/>/aw/>/ew/로 /oy/, /ew/를 /ay/, /aw/의 뒤로 변화순서를 잡고 있으나, /əy/, /əw/가 /ay/, /aw/로 下降하기전인 18세기 중엽에, 그리고 어떤 방언은 아직도 /ey/, /ow/를 지니고 있었던 때에 이미 이를 변이형이 있었다는 Tiffin의 증거를 참작하면 Luick의 이 주장은 증거가 빈약하다. 따라서 보다 더 그럴사한 설명은 e/o switch 현상으로 보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exchange rule 이라고 한다면 영어의 방언에서 /oy/, /ew/가 언제나 따라다니는 현상이 쉬이 설명된다. 물론 /e/, /o/ 두개의 모음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데는 이 exchange rule이 없이도 가능하지만¹³ backness와 roundness의 feanture가 엇바뀌는 특수현상을 하나의 규칙으로 묶기 위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는 수 밖에는 없다.

同化(assimilation)와 異化(dissimilation) 현상을 다루는 방편으로 variables를 처음으로 도입한 Halle(1962)는 /ey/>/oy/, /ow/>/ew/의 현상도 off-glide로 부터의 backness dissimilation으로 볼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즉 이런 현상은 위의 방언에 다음과 같은 규칙을 더 했다고 가정하므로써 기술되고 설명될 수 있다.

$$\begin{bmatrix} \alpha \text{ back} \\ \alpha \text{ round}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alpha \text{ back} \\ -\alpha \text{ round} \end{bmatrix} / \left[\begin{array}{c} \text{---} \\ -\text{high} \\ -\text{low} \\ \text{V}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c} -\text{voc} \\ -\text{cons} \\ \alpha \text{ back} \end{array} \right]$$

12) Cf. Luick (1914 : 559—561).

13) Cf. Stockwell (1969 : 349—360).

5. 결 론

4에서 우리는 정음학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Hodges 이전에는 ME /i/, /ū/의 이중모음 실현단계에서 제1요소들은 각각 /e/, /o/로 다르게 지각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Hodges의 기술에서 처음으로 ME /o/가 아마도 /ɔ/로 하강되었고 ME /u/는 두가지음(/u, ʌ/)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ME /i/, /ū/의 제1요소가 중설음화되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Wallis에 와서 비로소 중설음화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설모음은 ME /u/가 변한 음들중의 하나, 그러면서도 /e/, /æ/, /o/, /ɔ/하고는 구별되는 중설모음이라는 것을 알았다(즉, /ə/, /ʌ/).

그러므로 (2)의 주장은 표준영어에 관한한 뒷받침될 수 없다. 왜냐하면 17세기 중엽에는 벌써 중설음화가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4.2, 4.3, 4.4에서 언급된 증거들 때문에 (3), (4)의 입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 3에서 언급한 것 처럼 Dobson과 Stockwell은 ME /æy/(ai)와의 交替(intersection/crossing)의 가능성 때문에 (1)의 입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두음의 교차가 반드시 두음의 癒合(merger) 현상을 초래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가정은 反論의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다. 설사 ME /i/와 /æy/의 경로가 서로 교차한다고 해도 그들이 반드시 癒合한다고 할 수는 없다. SPE에서 지적되었듯이 Dobson의 결론은 음변화가 漸進的인 과정을 밟는다는 가정에 입각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음변화는 突發的이고 문법에 규칙들을 더 함으로써 일어나는 결과라고 생각할 진댄 Dobson의 결론은 타당성을 결하는 것이다. 즉 ME /i/와 /æy/는 유합 현상을 초래하지 않고도 서로 교차될수 있다는 증거를 위에서 보았다.

Stockwell과 McCawley는 intelligibility의 손상이나 유합현상의 가능성 때문에 SPE식의 exchange rule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4.3, 4.4에서 우리는 그들의 주장이 타당성을 결하고 또 exchange rule을 배제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Dobson의 음변화의 점진성을 받아 들인다고 해도 ME /i/, /æy/는 구별되었을 것이고, 이 구별로 인해서 그 phonetic basis가 무엇이었던간에 결코 이 양자는 융합되지 않았을 것이다.

ME /ā/, /æ/, /ē/와 같은 長母音(long, tense vowel)이 많은데 하필이면 /æy/만을 골라 /i/와의 유합 운운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 만약 ME/i/가 정음학자들이 말하는 여하한 長母音과도 유합할 수 있거나, 또 이들 長母音이 모두 이중모음이라면 점진성의 이론상 ME/i/는 그들중 어떠한 것과도 유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i/는 (2)에 의해서 위 장모음의 모든 경로를 다 거쳤을 테니까. 그런데도 /æy/(ai)만을 내 세우는 이유는 알 수 없다.

영어 모음변이에 대한 Dobson의 분석을 비판하면서 Ekwall(1958, p.311)은 설사 ME/i/가 이중모음화 되었을 때 /æy/가 /ey/로 상승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자가 반드시 유합 되었다고 가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ei-diphthong이 있었다고 해도 서로 구별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Labov의 실험결과로도 뒷받침 된다.

또한 점진성의 이론을 가정하고 ME /æy/가 단모음화 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1)의 입장을 배제할만한 증거는 없다. 실은 Jespersen도 음변화의 점진성을 믿었고 또한 ME /æy/가 단모음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나 그는 조금도 유합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Stockwell은 ME /i/, /ē/는 모두 이중모음이고 또한 exchange rule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합을 초래하지 않고는 /i/ > /ey/; /ē/ > /iy/를 결코 얻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그의 이론이 과한 조건들 때문이지 결코 증거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음변화에 관한 일련의 제약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1952, p.192):

1. When a simple nucleus changes, that change consists in its reclassification under the next contiguous phonemic notch in any direction within a structural frame.
2. When a complex nucleus changes, that change consists in either one of the two possible changes:
 - A. Reclassification of the vowel of the complex nucleus under the next contiguous phonemic notch in any direction within a structural frame.
 - b. Reclassification of the semi-vowel of the complex nucleus under one of the other semi-vowels in the system.

이 constraints를 그가 들고 있는 GVS의 세가지의 가능한 경로에 비추어 보아도 우리는 어느 입장이 가장 타당성을 띄고 있는가를 곧 알 수 있다.

그는 GVS의 가능한 경로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p.30):

- (a) [ii]>[ei]>[ai] -[(3)의 입장]
 (b) [ii]>[ii]>[ei]>[ai] -[(4) "]
 (c) [ii]>[ei]>>[æi]>[ai] -[(2) "]

이 가운데서 그의 제약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b)뿐이다. (a)는 그의 제약1에 저촉되고 (c)는 교차 및 유합때문에 배제하고 보니 (b)를 가장 합리적인 경로로 잡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1)의 입장 즉 [ii]>[ei]>[æi]>[ai]의 line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그의 제약에도 저촉되지 않을뿐더러 /æy/와의 교차나 유합을 피할 수 있는 경로이다. 또한 그의 제약에는 exchange rule을 배제하는 항목이 들어 있지도 않다.

지금까지 논의된 증거나 자료들을 가지고는 下降化보다 中舌音化를 우선시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를 주장하려면 변화 /iy/>/ey/는 불가능하다거나 /ē/>/i/는 진행되는데 /iy/>/ey/는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변화는 위의 제약에 조금도 저촉됨이 없을 뿐더러 아마도 이를 저지시킬 어떤 universal한 제약도 없는것 같다. 또한 Czech어 증거에서 우리는 이런 변이형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synchronic grammar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영어방언에서도 /iy/>/ey/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음학자들의 기록에 대한 가장 그럴사한 해석에 의하여, 역사적으로도 下降化가 中舌音化를 앞질렀다는 사실로 미루어 Luick, Jespersen등에 의해서 제안되어온 전통적 견해, 즉(1)의 입장이 가장 설명력있는 견해인 것 같다.

Bibliography

- Bailey, C.-J. N. 1970. "The English Great Vowel Shift Past and Present," *Papers in Linguistics* 3:173-78.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homsky, 1967. "Some General Properties of Phonological Rules," *Language* 43:102-128.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 Dobson, E.J. 1957. *English Pronunciation 1500-1700*. London: Oxford Univ. Press.
- Dobson, E.J. 1969. "Early Modern Standard English," Lass R. ed., *Approaches to English Historical Linguistics*. New York: 419-39.
- Erdmann, P.H. 1972. "The English Great Vowel Shift and Generative Phonology," *Lingua* 29:243-73.
- Halle, M. 1964. "On the Bases of Phonology," Fodor and Katz, eds. *The Structure of Language: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324-33.
- Halle, M. 1964. "Phonology in Generative Grammar," Fodor and Katz, 334-52.
- Hockett, C.F. 1965. "Sound Change," *Language* 41:185-205.
- Jespersen, Ottotto. 1961.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I: Sounds and Spellings*.
- Kim, Chin-Wu. 1968. "The Vowel System of Korean," *Language* 44:516-27.
- King, Robert D. 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N.J.
- Luick, K. 1914-40. *Historische Grammatik der englischen Sprache*. Oxford: Basil Blackwell.
- Stockwell, Robert P. 1964. "On the Utility of an Overall Pattern in Historical English Phonology," Lass, R ed., *Approaches to English Historical Linguistics*. New York, 88-96.
- Stockwell, Robert P. 1969.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Great English Vowel Shift," *The George L. Trager Festschrift*, Florida State Univ.:344-62.
- Sweet, H. 1891. *New English Grammar*, Part I. Oxford.
- Wang, William S-Y. 1968. "Vowel Features, Paired Variables, and the English Vowel Shift," *Language* 44:695-708.
- Wolfe, Patricia M. 1972. *Linguistic Change and the Great Vowel Shift in English*. Univ. of California Press.